

광주시 '장애인 친화도시' 속도 낸다

광주복지연구원, 민선8기 장애인정책 발표

2026년까지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홀로 대중교통을 타고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장애인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안이 마련됐다.

또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취업지원과 함께 각종 장애인 복지 시설들이 산·개축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는 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사회복지회관에서 광주시 관계자, 광주복지연구원,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0여 명이 모여 '제2차 광주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광주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 장애인정책 종합계획과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복지 현실을 고려한 정책방향 수립에 따른 것이다.

보고회에서는 광주지역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하는 취업지원 정책과 여성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방안과 함께 발달지원,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체계, 광주시

E스포츠팀 육성 전국대회 개최...2025년 장애인회관 완공 취업 지원·교통약자 전용차량 확대·무장애 관광 인프라 확충

장애인 e스포츠 팀 육성 등의 내용이 새롭게 제시됐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도 신·개축된다. 장애인 복합수련시설과 장애인회관,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이 내년 착공해 2025년 개원할 예정이다. 지난 1998년 개관한 시립장애인복지관은 노후와 침수 문제 등이 발생해 2024년에 재건축, 2026년 재개관 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광주에는 지난 8월 기준 교통약자 전용차량 116대가 운행 중이고, 전용 택시는 92대가 운행 중이다. 점차 보도블럭이 설치되고 휠체어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된 무장애 정류소는 124곳이 설치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6년까지 전용차량을 13대를 더 늘리고 무장애 정류소도 10곳 더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 12월 기준 303대인 시내 저상버스를 2026년까지

339대까지 늘리고, 시외·고속버스 노선에 저상 버스 노선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자인 '무장애 관광' 인프라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부터 각 5개 자치구에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관광 해설코스를 운영하는 등 관광지원사업으로 진입지점부터 주요 관광시설과 편의시설까지 무장애 동선으로 개선한다.

이어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광주시 주요 공원의 화장실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하며, 점자블록과 전통휠체어 충전소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아동용 안전그네' 처럼 장애아동이 접근가능한 놀이기구 교체를 통해 '광주형 무장애 친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들의 일자리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총 110명의 장애인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21.8%로 매우 낮은 점에서 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광주시는 중증장애인들이에게 그리기, 춤추기, 연극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2023년 5억원, 2024년부터는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광주시는 오는 2026년까지 여성장애인지원담당기구를 설치해 성 범죄피해를 겪은 여성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검사, 의료비, 직업훈련, 자립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광주시 장애인 e스포츠 육성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2023년부터 광주시와 조선대가 '장애인 e스포츠대회 MOU'를 맺고 매년 4월에 4개 종목(피파온라인4, 카트라이더, 배틀그라운드, 닌텐도 Wii sports)으로 '광주시장애 전국장애인 e스포츠대회'를 개최해 광주지역 장애인 e스포츠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지역 장애인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광주시가 장애인 친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천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최악 가뭄' 완도 학교에 예비비 2억원 긴급 투입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청이 50년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완도지역 학교에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긴급 예산을 지원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완도지역 학교의 먹는 물(생수) 구입과 생활용수 저장용 물탱크(저수조) 추가 설치 등에 2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예비비는 제한 급수가 시행되는 완도 노화, 금일, 소안, 보길, 고금, 약산 지역 학교에 생수 구입 예산 8500만원, 물탱크 추가 설치 예산으로 1억1000만원을 사용하게 된다.

도 교육청은 생활용수 보급을 위해 전남소방본부와 완도군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하고, 제한 급수로 인해 학교 급식용수까지 부족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급식식단 조정(간편식 등)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예산 지원이 학교의 불편을 더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나마 되길 바란다"며 "전남 교육가족들이 물 절약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운데)가 7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2022년 5·18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 미디어센터 설치해 5·18 왜곡 대응해야"

민언련 토론회...혐오 표현 규제법안 재쟁비 등 의견 나와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온라인 등지에서 왜곡·편향된 내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전남 기구인 '5·18미디어센터' (가칭)를 설치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7일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주최한 '2022년 5·18민주화운동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민언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네이버 뉴스기사 댓글과 유튜브 등지에서 5·18 왜곡·편향 표현 현황을 파악한 결과 유튜브 영상 82개, 네이버 기사 댓글 1761개에서 문제 표현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적발된 표현물 중 삭제 조치까지 이뤄진 건 극소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 댓글 1718건 중 24건(1.4%)만이 네이버 운영규정 미준수 사유로 삭제됐으며, 유튜브 82개 문제 영상 또한 단 4개 영상만이 삭제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5·18 왜곡·편향된 끊어내려면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법안이 전반적으로 재쟁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혐오표현은 피해자(개인 또는 집단)가 특정되고 구체적인 손해가 입증되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은데, 이에 따라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재 규정을 입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의 5·18기념재단 연구위원도 "5·18단체와 광주시, 보훈처 등이 5·18 역사왜곡특별법을 적극 활용해 왜곡·편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 연구위원은 "5·18은 진보, 보수 등 정치 상황에 따라 왜곡·편향 표현물도 민감하게 증감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방정부인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해 전담 기구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왜곡 표현물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5·18기념재단에서 구글·유튜브 등에 대응하는 온라인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학생·교사 스트레스 늘었다

시교육청, 광주교육 실태조사

학생, 학업·교우관계·학폭 등 교사 '학생 스트레스' 상승

가정과 학교에서 광주지역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광주시교육청이 학생, 교사, 학부모 등 1만8700명을 조사 대상으로 한 '2022 광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광주 학생들이 최근 1년 동안 받은 일상 스트레스 정도를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는 67.2점이었다.

2년 전인 2020년 55.6점보다 10점 이상 높아졌다.

친구와 갈등, 학교폭력, 학업, 미래 불안, 가정불화, 경제난 등 조사 항목 전 부문에서 스트

레스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본인 삶의 만족도는 67.3점으로 전국 평균(65.9점) 보다 다소 높았다.

교사들의 스트레스도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행정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자는 2020년 17.5%에서 21.6%로 상승했다.

'학생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도 2020년 11.5%에서 15.9%로 높아졌다. 학부모나 지역사회 민원(11.2%→12.9%), 교권 침해(10.7%→12.0%), 관리자 관계(5.6%→6.3%)에서도 모두 스트레스가 상승했다.

광주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은 74.6점으로 전국 학생 평균(67.3점)보다 높았다.

학부모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2020년 66.8점에서 2022년 67.4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제명 추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6일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

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오는 15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기총은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